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의 적응주기에 대한 시스템사고 분석

*안지현·**최남희

(배경 및 문제의식)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관광 침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사고를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 간의 상호 피드백 구조와 루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지도 작성이다. (분석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농촌관광 적응주기는 집단감염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우선, 회복주기이다. 이 시기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관광에 대한 위협지각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되면서 농촌관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타났던 심리적 변화로 여가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별여행자주간이나 지자체별 지원금 등의 정책이 투입되었다. 둘째, 적응주기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코로나블루로 인한 농촌관광의 욕구가 증가하는 이중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농촌관광의 위협지각인식이 더욱 고조되면서 농촌은 클린사업장 선정을 통한 안정과 위생관리 지침이 제시되고, 농업생산 저하로 고용지원금 등의 정책이 투입되었다.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습관과 실천이 더욱 집단감염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전환주기이다.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에 현 상황에서 전환주기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라이프생활의 변화와 공간에 대한 비경제로 농촌관광 장기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및 시사점) 정리해보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변화로 하여금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방역과 성숙된 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적응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농촌관광, 시스템사고, 인과순환지도

* 관광학 박사(주저자, jihyun016@naver.com)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교신저자, drnhchoi@ut.ac.kr)

An Analysis of Systems Thinking on the Adaptation Cycle of COVID-19 and Rural Tourism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Ecological Resilience

An Ji Hyun·Choi Nam Hee

(Background and Research Problem) The problem awareness of this study was attempted from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the stagnation of rural tourism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periodically repeating the spread and decrease of COVID-19.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utual feedback structure and loop between COVID-19 and rural tourism by using system thin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o-ecological resilience system. **(Research method)**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create a causal loop map by systems thinking. **(Results)** Due to COVID-19, the adaptation cycle of rural tourism has been repeated the spread and decrease of group infections periodically. Firstly, it is the recovery cycle. This period had a negative impact on rural tourism as the tourism industry stagnates due to the perceived risk of tourism as a result of cluster infection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desire for leisure and consumption increased due to the psychological change that appeared as a result of social distancing. Therefore, policies such as Special Travelers Week and subsidies for each local government were put in. Secondly, it is the adaptation cycle. As COVID-19 continues, there is a negative perception of tourism, while on the other hand, the desire for rural tourism is increasing due to the corona blue. As the awareness of the risk perception of rural tourism increased, guidelines for stability and hygiene management through selection of clean work places were presented in rural areas, and policies such as employment subsidies were put in due to the decline in agricultural production. Efforts have been made to support policies tailored to the situation, but most importantly, habits and practices in daily life have helped to further stabilize the cluster infection. Thirdly it is the transition cycle. The pandemic is still going on. Therefore, in the current situation, there will be limitations in discussing the transition cycle in depth. However, in rural areas,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long-term rural tourism programs will be required due to the change in lifestyle caused by the COVID-19 and non-boundary boundaries to space. **(Conclusion and Implications)** In summary, it is a time of transition due to various changes that occur throughout society. As a result,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are being provided,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lifestyle prevention and mature citizenship.

Keywords_ Social-Ecological Resilience, Adaptation Cycle, COVID-19, Rural Tourism, Systems Thinking, Casual Loop Diagram

1. 서론

농촌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체험활동과 자연환경을 추구하는 도시민들에게 관광지로써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하여금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침체되었다. 농촌관광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1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래 3월에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 유행을 일컫는 팬데믹(pandemic)을 발표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전염병 경보를 최고단계 수준으로 선언하였다.

관광객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을 인식하면 해당 관광목적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관광수요가 감소한다(Chew & Jahari, 2014; 김문찬·오상훈·이미진, 2017 재인용).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하계휴가 통행실태에 의하면, 여름휴가 계획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코로나로 휴가계획을 정하지 못한 응답률이 75.6%인 것으로 나타났다(매일일보, 2020.7.31.). 이에 따라 관광 소비지출은 지난 해 보다 약 11조원 감소하였으며, 방한 관광객도 현저히 감소하여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매일일보, 2020.5.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기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나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예상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뉴노멀 2.0시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농촌관광이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난 여러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선형적 관점에 의한 단일책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관광산업의 영향과 대안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리질리언스 시스템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Holling(1973)이 처음 제시한 용어로 사회·생태학적 접근에 의한 복잡한 사회현상인 관광의 복잡성과 동태성을 설명하는 데 현실적으로 유용한 이론적 접근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시스템사고는 전체적 사고, 피드백 사고, 사실적 사로를 통해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피드백 구조를 탐색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방법이다. 따라서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지도를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농촌관광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적응주기 단계를 적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농촌관광의 변화를 단계 별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사고를 활용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주기별 행태변화와 피드백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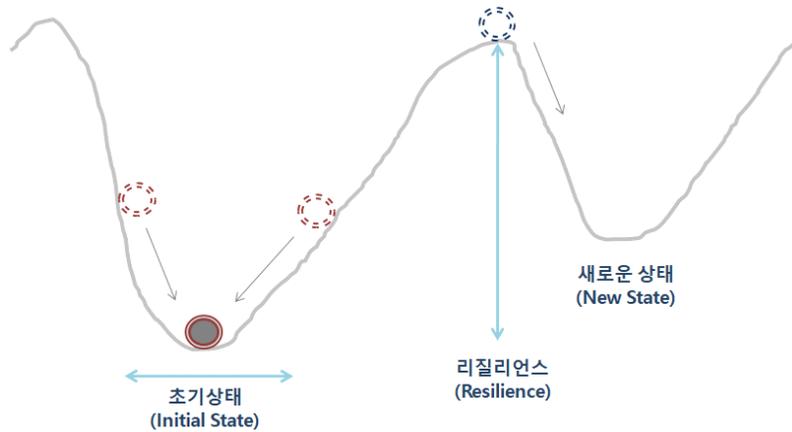
리질리언스는 Holling(1973)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다. 리질리언스는 '도약 또는 뛰어 오르는 경향이 있음'을 뜻하는 라틴어의 'resilire'에서 유래되었다(Online Etymology Dictionary). 이에 외부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에서 적응하고 견뎌냄으로써 다시 회복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사회·문화, 생태·환경의 균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성이 함께 내재된 개념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위해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우리세대에 필요한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은 한편으로 현실 적용에 애매하고 복잡한 개념이다. 모든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장이란 불가능한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외부의 충격과 교란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발전이 지속되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은 보편적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발전(development)이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

발전을 뜻하는 Development는 'develop'과 'ment'의 합성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감' 또는 '일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됨'을 뜻한다. 이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bringing out the latent possibilities)'이라는 번영(prosperity)과 유사한 개념이다(Online Etymology Dictionary).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는 발전은 장기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전망을 최적화해야 하는 것으로 양질의 변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균형 잡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발전은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이고 단기와 장기라는 두 시점 간의 비교를 통한 가치판단으로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광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행태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환경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함께 다루는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의 핵심 키워드로 Pauley, McKim and Hodbod(2019:135-136)는 크게 적응(adaptation)과 전환(transformation)을 강조하였는데, 적응은 '변화에 대한 반응을 예상할 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상호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내 역량'을 뜻하며, 전환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시스템 내 요인 간의 재조화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념과 가치의 시스템 전환, 사회적 행태의 패턴, 다층수준의 거버넌스, 시스템 관리'를 내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Pauley et al.(2019)가 제시한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diversity)과 중복성(redundancy)을 유지한다. 둘째, 연결성(connectivity)을 관리한다. 셋째, 피드백(feedback)을 관리한다. 넷째, 복잡적응계사고(complex adaptive systems thinking)를 향상한다. 다섯째, 배움(learning)을 지속한다. 여섯째, 참여(Participation)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다층수준의 거버넌스 시스템(polycentric governance systems)을 촉진한다. Fiorentino and Montana-Hoyos(2014:10)는 탄력적인 시스템 내 분지 속에서 공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리질리언스 이론을 설명하였다. <그림 1>을 살펴보면, 분지 속의 공을 조금 밀면 공은 바닥으로 내려가 초기상태에

머물지만, 공을 세계 밀면 다음 대야로 넘어가 결국 새로운 상태로 이동한다. 이때 분지의 높이가 높을수록 공이 견딜 수 있는 리질리언스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리질리언스 이론

자료 : Fiorentino and Montana-Hoyos(2014:10)

그러나 리질리언스는 가뭄 댐건설 및 재난 분야에서 주로 적용되어오는 과정에서 실증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이론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환경적으로 복잡한 요인들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도시의 다이내믹한 특성을 고려한 이론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이나 관광 등 지역연구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현재로서 미비한 실정으로 보이는 바, 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연구의 축적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생태 환경적 영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나타난 전반적인 사회현상을 분석한 연구로 김태종(2020)은 10개의 신문사와 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여 시기별 주요 키워드와 토픽변화 시기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였다. 제1기 관심단계에서는 국제적 불안감 고조에 대한 토픽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2기 주의단계에서는 중국 전염병 확산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3기 경계단계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확산이, 제4기 심각단계에서는 대구·경북지역 확산·사망자 증가에 대한 토픽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선언 이후 임시직과 기간제 등의 실업률과 휴직으로 인한 임금수준 및 고용불안으로 소비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식, 여행 및 대중교통에 대한 지출이 감소한 반

면,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였다(이민우·유지은, 2020).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호텔객실점유율이 감소하였으며 면세점·MICE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감소함에 따라(이훈, 2020) 건강과 웰빙, 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여가와 관광을 즐기고 소비하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리서치(2020)에 의하면 집에 머무는 시간(68%)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68%)이 증가하고, 온라인 콘텐츠(64%) 이용과 온라인 구매(40%)가 증가하였으며 배달 서비스 이용과 품목(39%)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훈, 2020).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 등의 코로나블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훈·김예진·이덕희·황희훈·남슬기·김지윤,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생태·환경 영향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온실가스가 유발되면서 열에너지로 기온이 상승하여 식수와 위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야생동물과 인간의 질병에 영향을 미쳐 생물다양성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와 허리케인, 산불, 태풍 등의 불안정한 날씨로 하여금 사망과 감염질환 발생이 증가한다(홍운철, 2020).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였으나 배달 및 온라인 구매 등의 언택트 소비로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였고, 전력수요와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재생에너지 등의 저탄소 투자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재경·김동영·예민지·최민애, 2020).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거리두기, 언택트와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위축되면서 관광분야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산업 관련 이슈분석으로 홍민정·오문향(2020)은 잠재 관광객이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수집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잠재 관광객의 감정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corona), 여행(travel), 확진(confirmed), 유럽 순으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놀라움, 억눌림,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군집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 종사자 직무환경 변화로 김동준·최현준·조환기·김광용(2020)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호텔, 여행, 항공사에 어떤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각종 이벤트가 대다수 연기되면서 매출감소로 인한 인건비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방식에도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산업계에 비대면 형식의 서비스 개발과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로 하정우·김창수(2020)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관광위기를 고찰하여 향후 관광산업의 과제로 재난회복탄력성을 제시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관광도 예외는 아니다. 먼

저국의 농촌관광 연구로 Zhu and Deng(2020)은 KAB(Knowledge-attitude-behavior)모델을 활용하여 중국인 4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위험지식, 위험인식, 위험회피태도, 행동의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위험지식이 많을수록 농촌관광의 위험인식이 낮았고 폐렴 위험지식이 농촌관광 위험인식에, 그리고 관광위험지식은 위험회피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위험인식과 위험회피태도는 행동의도 보다 추천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위험지식은 위험인식 보다는 위험회피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lva(2021)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포르투갈의 농촌관광 숙박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3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농촌숙박시설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감소로 매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 장비나 시설의 소독 및 청소 등의 위생관리 비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의 농촌관광 수요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독립형 숙박시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vgrafova, Ismailova and Kalinichey(2020)는 러시아의 지속가능한 농업관광 요인으로 도시 보다 심각한 농촌 실업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농촌관광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농촌주민들은 전통적인 활동을 선호하고 관광객은 농촌관광을 통해 소비보다 생생한 인상과 경험을 원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지리적 여건상 각 지역의 계절적 변동과 특이성,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소규모의 가족경영과 네트워크 구축, 인적역량강화, 사회·문화적 요인의 재창조, 전문적이고 다(多)기능적 중·소규모의 관광시설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 연구한 결과, 농촌에 대한 청정 이미지 마케팅 및 소규모 여행에 맞는 서비스 대응, 중장기적 변화에 따른 구조개선(지역단위 위생, 홍보, 융·복합된 시장 확대, 전문적인 농촌의 사회적 기업 육성, 농촌관광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면서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더욱더 이슈가 확산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제기되는 잠재 관광객의 불안과 억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안전한 여행문화를 위한 소규모 여행의 증가, 비대면 관광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영남·홍성남(2020)은 비대면 확산과 언택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관광산업이 위축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농촌을 중심으로 건강과 웰빙, 교류와 체험을 중심으로 한 치유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관광산업에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받아들이는 인식전환을 통해 농촌관광의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시스템사고와 인과지도

1. 시스템사고

본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지도 분석이다. 시스템사고는 Medows가 1980년대 초반 성장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핵심사고 기법으로, 통합적 사고(holistic thinking), 피드백 사고(feedback thinking), 사실적 사고(operating thinking)를 기반으로 한다(김도훈·문태훈·김동환, 1999). 첫째, 통합적 사고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체적 시각에서 시스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피드백 사고는 시스템사고에서 요구하는 핵심사고이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단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종속변수 역시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셋째, 사실적 사고는 특정 현상에 대한 논리적 흐름에 대한 시각으로 어떤 요인이 발생한 후 자연스럽게 다음 현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연계 흐름을 훈련하는 사고기법이다.

2. 인과지도 작성 방법

시스템다이내믹스에서는 시스템사고에 의해 도출된 인과지도를 하나의 기호체계로 표현한다(〈표 1〉 참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양(+)의 피드백 루프 'R' 또는 '+'로 표기하며, 방향이 반대로 변화하면 음(-)의 피드백 루프 'B' 또는 '-'로 표기한다. 그 외 시간지연이 발생하면 화살표에 '='를 표시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1〉 인과지도 작성 방법

구분	설명	예시
양의 인과관계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 x가 감소하면 y가 감소	출생 → 인구증가 +
음의 인과관계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 x가 감소하면 y가 증가	사망 → 인구감소 -
지연	변수 간의 변화가 시간차를 두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발생함	달걀 → → 닭
양의 피드백 루프	피드백 루프가(+)로 나타나 어느 한쪽을 극단으로 강화시키며, 자기강화적, 일탈 강화적 피드백 루프로 불림	⊕ R ↑
음의 피드백 루프	피드백 루프가(-)로 나타나 균형상태를 유지하며, 안정화, 목표지향적, 자기균형적, 자기억제적 피드백 루프로 불림	⊖ B ↑

자료 : 김도훈 외(1999)

IV. 분석결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이후 농촌관광 실태 현황

〈표 2〉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와 매출액에 대한 현황자료이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농촌관광 방문객 수와 매출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e-나라지표(2021)에서 제공하는 도농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9년(1,307만명) 대비 2020년(656만명) -49.8% 감소하면서 매출액도 2019년(1,047억원) 대비 2020년(624억원)에는 -4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 및 매출액에 대한 도농교류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촌체험휴양마을 (개소, 누계)	575	700	803	848	873	953	1,002	1,073	1,115	1,151
방문객 수 (만명)	692	884	105	829	870	917	1,050	1,237	1,307	656
매출액 (억원)	750	917	985	872	877	883	887	940	1,047	624

자료 : e-나라지표 도농교류 현황(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 및 매출액) 2021.3.25.12:57

〈그림 2〉는 숙박여행 및 당일여행 경험률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데일리(2021)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나타난 농촌관광 숙박에 대한 경험률은 2019년(69%)에서 2020년(58%)인 것으로 나타나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발생한 경험률로 초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농촌관광 숙박 경험률이 현저히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한 동안 안정세를 보이면서 여름 등 농촌관광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는 농촌관광 숙박에 있어 증가와 감소 추세가 반복되는 파동을 보인다.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관광 침체에 대한 우려로 숙박 및 체험비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 바, 농촌관광 경험은 초기 팬데믹으로 인한 우려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추세를 토대로 성장과 감소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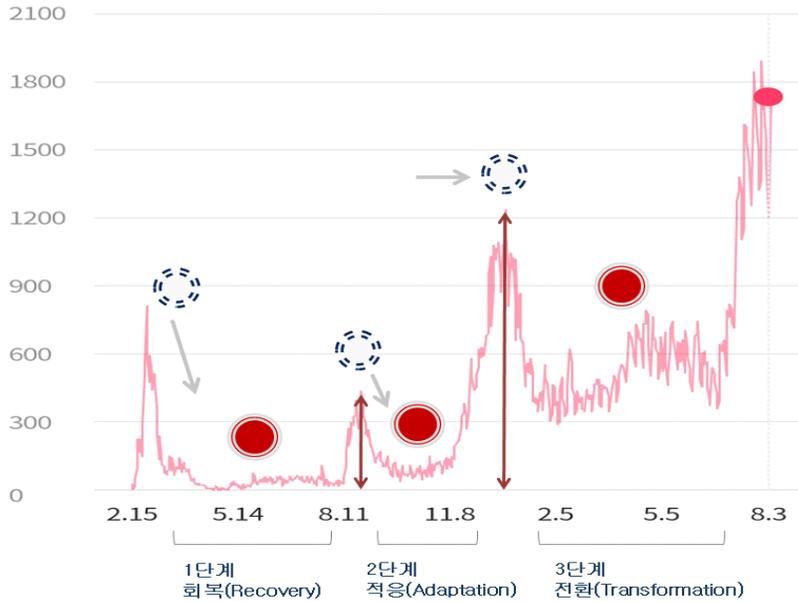
〈그림 2〉 숙박여행 및 당일여행 경험률 추이(주별)

자료 : 이데일리(2021.3.23.) 코로나 확진자 급증해도 여행 갈 사람은 간다

2. 리질리언스 적응 단계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주기 설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주기를 구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확진자 현황을 토대로 리질리언스의 단계별 주기를 구분하고자 한 이유는 감염발생에 따라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피드백 구조와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를 토대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주기를 설정해 보면,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초기 집단감염은 대구경북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2월 29일 909명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 확진 급증으로 인해 3월 개강연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이후 1차 집단감염은 교회, 학교 등 수도권 중심의 집단감염으로 8월 27일 441명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9월 초 확진자가 서서히 감소하며 적응단계를 보이고 정부의 코로나 대응지침이 다소 하향되었다. 2단계 집단감염은 교회, 식당, 학교, 여가시설 등 전국적으로 확산된 집단감염으로 12월 25일 1,240명의 확진자가 급 발생한 시점이다. 이후 전국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까지 격상시키기 위한 준비가 이어지면서, 올해 1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7월 7일부터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연일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3차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하고 8월에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18세부터 60세 이하까지도 사전 예약을 통해 백신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는 않고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집단감염-19에 대한 확진자 수 현황을 토대로 농촌관광에 대한 리질리언스 적응주기를 회복, 적응, 전환인 3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확진자 현황에 대한 리질리언스 3단계

〈표 3〉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부대응을 정리한 내용이다. 2월 말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이래, 8월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1차), 12월 말 교회, 학교, 식당, 군부대 등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경보단계에 이르렀다(2차). 이후 2021년 7월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대 수치를 보이며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3차). 정부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하여금 초기 교육부에서 초중고 개강 연기이외 학사운영권고방안을 발표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 대응 지침 및 소상공인과 지역화폐 등의 긴급재난생활비와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백신을 확보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시작으로 18세 이상의 연령층 까지 확대 투여될 예정이다.

〈표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현황 주기 및 정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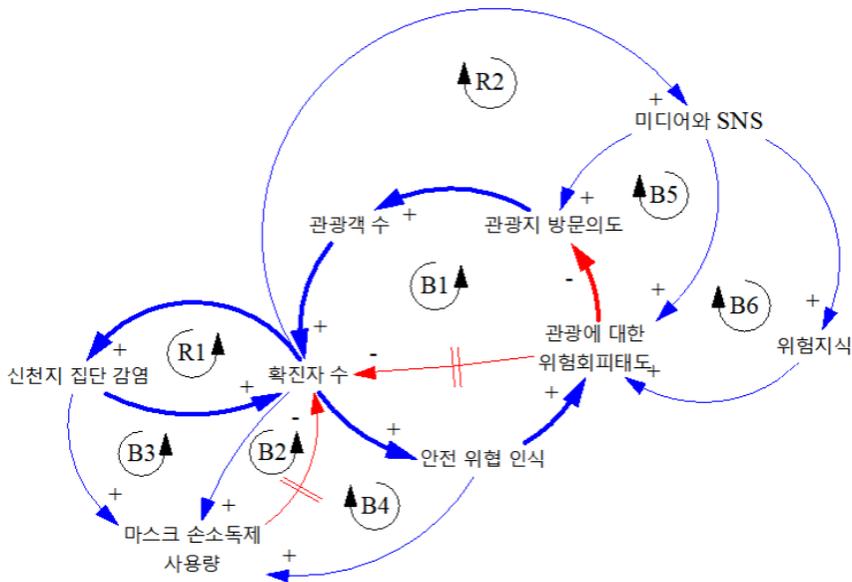
구분	확진자 주기	추이	주요 사건	정부대응	농촌관광 지원
1 단계	2020년 2월 중순 ~ 2월 말	증가	(1차) 2월 29일 대구 신천지 교회	(3월) 교육부 초중고 개학연기 학사운영권고방안 발표	-
	2020년 2월 말 ~ 3월 말	감소		(3월) 질병관리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대한의사협회 권고문	-
	2020년 4월 초 ~ 7월 말	안정	이태원 클럽	(4월) 긴급재난생활비 및 정부재난지원금 발표 (5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6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6월20일~ 7월19일) 특별여행자유간
	2020년 8월 초 ~ 9월 초	증가	(2차) 8월 27일 성북교회, 양천구 교회, 강남골드트레인, 파주스타벅스, 용인교회, 죽전고 등 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8월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8월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2단계→ 2.5단계	-
2 단계	2020년 9월 초 ~ 9월 말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2.5단계→2단계	-
	2020년 10월 초 ~ 10월 말	안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2단계→1단계	-
	2020년 11월 초 ~ 12월 중순	증가	12월 25일 학교, 병원, 식당,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1단계→2단계 (12월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2단계→2.5단계 (12월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준비 (연말) 특별방역기간 지정 전국5인 이상 집합금지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지정
3 단계	2020년 12월 중순 ~ 1월 초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2021년 1월 초 ~ 7월 초	안정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자체별 농촌관광 숙박 및 체험비 할인지원
	2021년 7월 둘째주 ~ 현재	증가	7월 7일부터 사상 최대로 확진자 1,000명 이상 발생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3단계~4단계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부 브리핑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농촌관광 리질리언스 주기 분석

1) 1단계 리질리언스 “회복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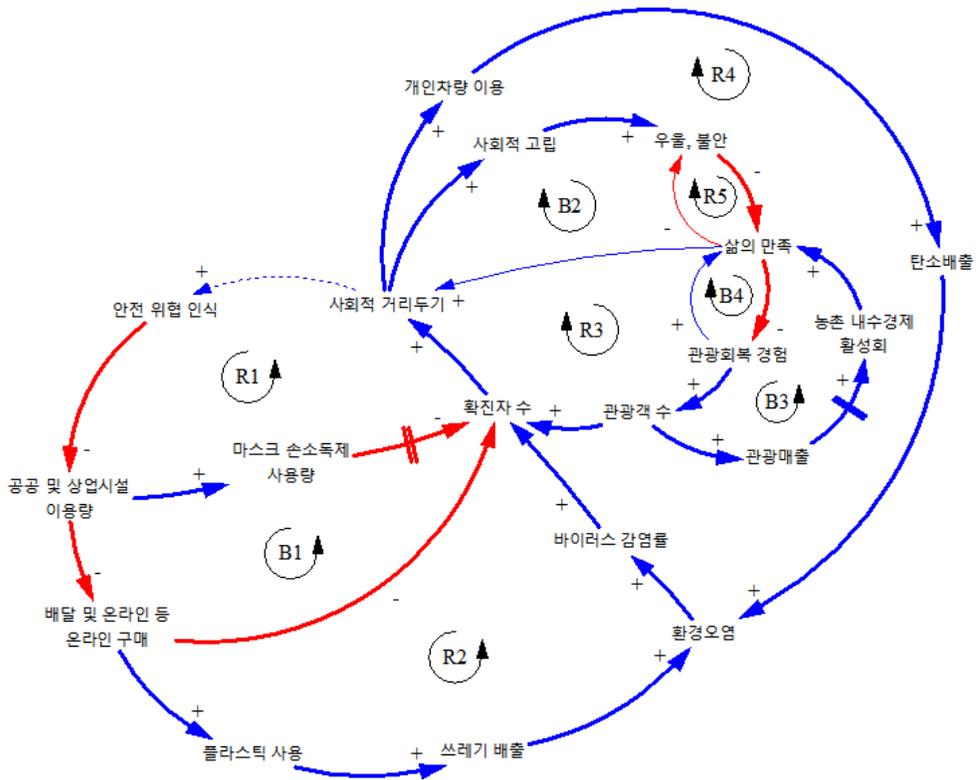
〈그림 4〉는 1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집단감염 확산으로 나타난 농촌관광의 인과지도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주요 피드백 구조와 루프를 살펴보면, 우선 2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천지 집단감염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집단감염 확산이라는 자기강화적인 양(+)의 피드백 루프를 보인다(R1). 반면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위험인식이 높아지면서 관광에 대한 위험회피태도가 커지고 이로 인해 관광지 방문의도와 관광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음(-)의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1). 그 외 생활방역에 대한 음(-)의 피드백 루프(B2, B3, B4)와 코로나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증가(R2), 관광지 방문의도를 억제하는 사회적 인식(B5, B6)의 작용 구조에 대한 피드백 루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1차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인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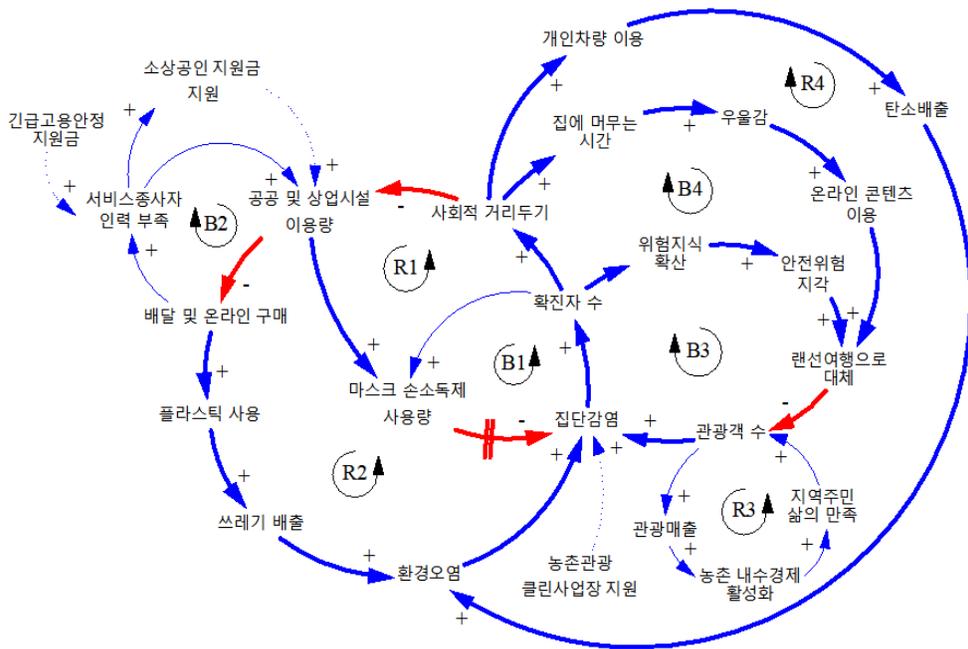
〈그림 5〉는 1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집단감염 감소와 안정세로 나타난 농촌관광의 인과지도이다.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3월 초 개강시기로 인해 초·중·고 개강을 연기하고 학사운영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주요 피드백 루프를 살펴보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전위험 인식이 증가하고 공공 및 상업시설 이용량의 감소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고, 배달 및 온라인 구매 증가는 플라스틱 사용 및 쓰레기 배출, 오염, 바이러스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양(+)의 피드백 루프를 보인다(R2). 반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위험인식 증가, 그리고 공공 및 상업시설 이용량 증가로 나타난 배달 및 온라인 구매 증가로 음(-)의 피드백 루프를 보인다(B1). 이를 통해 일상에서 실시하는 생활방역이 장기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하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고 개인차량 이용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양(+)의 피드백 루프와(R4),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우울 및 불안 등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음(-)의 피드백 루프(B2), 관광패턴 변화를 나타내는 양(+)의 피드백 루프(R3) 등이 도출되었다.



〈그림 5〉 1차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인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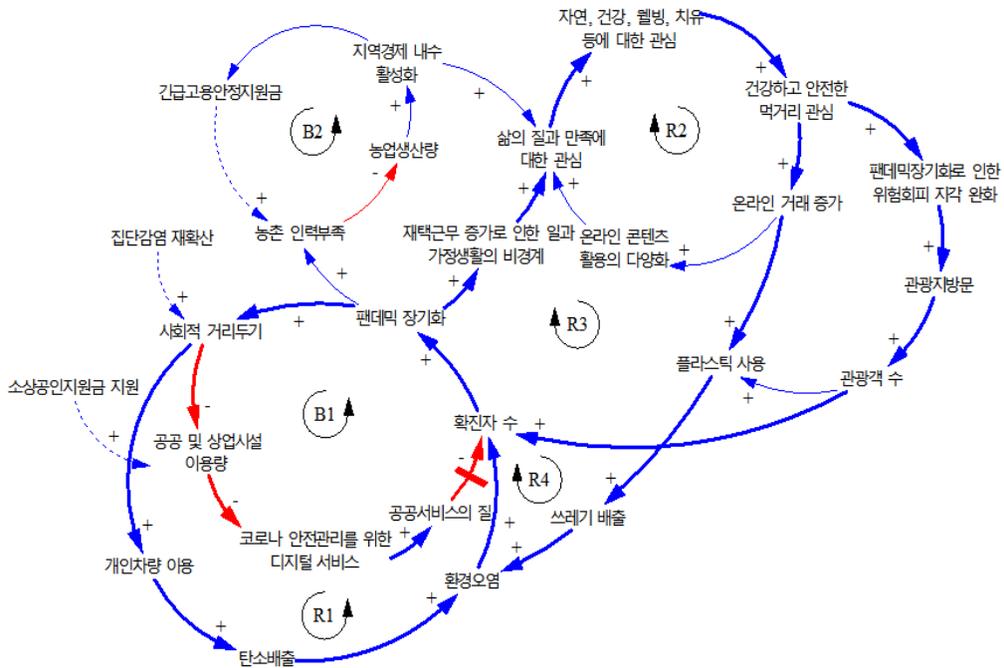
[그림 7]은 2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인과지도이다. 12월 학교, 식당가, 교회 등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다. 생활방역과 안전위협인식으로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쳐 팬데믹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응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난 주요 피드백 루프를 살펴보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농촌관광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었다. 특히 사회적 고립으로 나타난 코로나블루 현상으로(B4) 농촌관광을 생태적 전환과 치유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거리두기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홈 라이프의 생활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환경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기술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개인생활과 공공에 나타날 변화에 적응할 대안이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7〉 2차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한 인과지도

3) 3차 리질리언스 “전환 주기”

〈그림 8〉은 3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집단감염 재확산으로 나타난 인과지도이다. 장기간에 걸친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고립, 코로나블루가 이어지면서 비대면과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어 소비와 여가생활의 변화가 온라인 구매와 콘텐츠 이용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관광활동의 변화 등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공공 및 상업시설 이용이 감소하여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공공 디지털 확산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고(B1), 그 외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B2). 이제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적응기를 거쳤다. 따라서 집이라는 공간의 활용이 다양해지고, 온라인사용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적 측면을 강조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구매와 체험이 이어지고, 팬데믹의 장기화로 위험회피 지각이 완화되면서 당일 농촌을 방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도 생태기반의 자연치유와 더불어 공간 활용의 다변화, 디지털 기술도입, 산업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코로나가 위협이 아닌 기회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8〉 3차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인과지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하여금 제기되는 농촌관광 침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사고를 활용하여 그 원인에 대한 구조를 인과지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안정이 반복되면서 예측불가능한 파동이 약 6개월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1차에서 3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확산주기에 의하면 초기보다 점차적으로 리질리언스의 크기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에 나타난 감염확산 주기보다 2차에 그리고 2차 확산 주기보다는 3차 감염확산 주기의 기간이 점차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이 지나고 확산 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감염이라는 외부충격에 의한 리질리언스의 수용범위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초기 감염에 의한 회복주기 보다는 적응주기에서, 적응주기 보다는 전환주기에서 리질리언스의 수용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기간 또한 더욱 지연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 내에서 존재하는 여러 복잡한 현상이 감염이라는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회복, 적응, 전환이라는 이중성이 모두 양립하는 생태계임을 시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감염확산 및 심리적 불안으로 코로나블루, 디토피아라는 용어가 제기된 반면, 온라인과 디지털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콘텐츠와 공간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따라서 홈트, 디지털 프로슈머 등 집에 대한 기능이 보다 다양해져 집이 업무의 공간이자 여가공간, 소비의 공간으로 전환되었으며,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소비와 구매가 이어졌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과 문제점은 보다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원인을 찾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에서 경제, 사회·문화, 생태·환경을 고려한 여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거리두기와 백신이 최선의 방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과 배려를 위한 언택트 문화와 거리두기는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인류와 인간의 활동이 언제까지 거리를 두며 이루어질 수 없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농촌관광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농촌관광 사업자는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광객은 어떻게 보다 성숙된 관광시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농촌관광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유지할 것은 유지하되, 사회에 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직장과 집의 경계, 생산과 소비의 경계, 여가와 일의 경계 등을 무너뜨렸다. 따라서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이러한 변화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촌관광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면 여가활동과 관광에 대한 회복소비가 급증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자 주기가 파동에 의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농촌을 찾는 관광객 역시 같은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관광의 매력요소는 본래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연에서의 쉼과 휴식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되찾고 안정을 취하며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생활문화의 체험과 경험에 있다. 이제 농촌관광은 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장기체류와 함께 심리적 치유와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농촌치유관광이 생활관광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농촌관광의 서비스 질과 경험을 향상시켜 농촌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야기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제안하였듯 화학백신이 아니라 행동백신과 생태백신이 중요하다(새전북신문, 2020.6.24.).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에는 관광도 책임을 동반한 행동·생태 백신을 더욱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농촌관광의 주기를 파악하여 단계별 변화에 대한 구조를 밝힘으로써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다양한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재경·김동영·예민지·최민애(2020).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이슈&진단, 412, 1-25.
- 김도훈·문태훈·김동환(1999). 시스템 다이내믹스. 서울: 대영문화사.
- 김동준·최현준·조환기·김광용(2020). 코로나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발전방안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9(4), 129-144.
- 김문찬·오상훈·이미진(2017). 관광위기에 대한 업종별 인식 차이 연구: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9), 271-287.
- 김영남·홍성화(2020). 뉴노멀 2.0 시대의 관광: 코로나19 유행기간 제주 방문 관광객 IPA 결과를 중심으로. MICE관광연구, 20(2), 143-161.
- 김태중(2020).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457-466.
- 매일일보(2020.5.23.). 코로나19 여파 새로운 방식 관광 필요.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526010008811>
- 매일일보(2020.7.31.). 코로나시대 휴가철 신품속도 무계획 차박 흥강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33969>
- 새전북신문(2020.6.24.). 산업문명시대 저물고, 생태문명시대 열린다.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7222>
- 이테일리(2021.3.23.). 코로나 확진자 급증해도, 여행 갈 사람은 간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5366628986272&mediaCodeNo=257&OutLnkChk=Y>
- 이동훈·김예진·이덕희·황희훈·남슬기·김지윤(2020).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 이민우·유지은(2020).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소비지출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12(3), 121-141.
- 이훈(2020). 코로나(COVID-19) 팬데믹, 관광여행의 변화와 전망, FUTURE HORIZON, 48호, 16-2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하정우·김창수(2020). 바이러스 관광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회복탄력성 탐색적 연구: '코로나19'(COVID-19) 재난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5(2), 499-517.
- 홍민정·오문향(2020).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내 잠재 관광객의 감정 반응 연구: 의미론적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관광연구, 35(3), 47-65.
- 홍운철(2020). 기후변화와 코로나. 철학과 현실, 127, 77-91.
- Evgrafova, L. V., Insmailocva, A. Z., & Kalinichev, V. L.(2020). Agrotourism as a factor of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In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421(2), 022058 (2020)doi: 10.1088/1755-1315/421/2/022058
- Fiorentino, C., & Montana-Hoyos, C.(2014). The emerging discipline of biomimicry as a paradigm shift towards design for resili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ed Objects, 8, 1-15.
- Holling, C. S.(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1-23.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

- Pauley, M. C., McKim, J. A., and Hodbod, J.(2019). A social-ecological resilience perspective for the social sciences of agriculture, food and natural resourc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60(4), 132-148.
- Silva, L.(2021).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rural tourism: A case study from portugal.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3.
- WHO(2020.3.11.).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 11 March 2020,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 Zhu, H., & Deng, F.(2020). How to influence rural tourism intention by risk knowledge during covid-19 containment in china: Mediating role of risk perception and attitud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0), 3514.

접수일 : 2021. 06. 22
1차 심사일 : 2021. 07. 23
2차 심사일 : 2021. 08. 19
3차 심사일 : 2021. 08. 24
확정일 : 2021. 08. 25

안 지 현

한양대학교에서 복촌의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시스템다이나믹스 연구로 관광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농촌치유관광을 연수받았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시스템다이나믹스, 지역재생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참여디자인 방법을 적용한 농촌 치유관광 공간조성 계획(2020)”,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이슈에 대한 의미연결망분석(2018)”이 있다.

최 남 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1996)하였고, 현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행정학부 행정정보학전공)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주시 도시계획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시스템다이나믹스, 미래학, 스마트시티, 도시 및 지역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주출산 여성 인구 변화의 동태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링(2021)” 등이 있다.